Tips on Measuring Medical Professionalism

Yera Hu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의학전문직업성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허예라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쉽지 않다. 그러나 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직업성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학교육을 대학 차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거나 실시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평가 영역에서 한 번쯤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

첫째,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내과 의사협회(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BIM)나 영국의 의사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협회에서 발표한 의학 전문직업성의 개념이나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평가도구와 관련 자료들[2,3]도 소개하고 있어서 대학차원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평가지침서가 개발되면 학생들의 전문직업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별 대학차원에서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전문직업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평가도구의 문항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지들에 대한 교육 및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개별 대학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과 핵심 자질들을 정했다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자들의 경우에는 평가도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교육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 전문적 자질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겠다. 영국의 경우 의사협회와 의과대학협회가 협력하여 의과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가치와 건강에 대한 지침서[4]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단편적인 평가보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임상수행능력평가의 일부분으로 환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보는 전문직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는 환자에 대한 학생의 행동 자체에서도 단편적인 면만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한 학기 또는 여러 학기에 걸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과정이나 여러 차례 이어지는 표준환자를 이용한 교육과정들을 통해 관찰되는 학생의 행동을 다양

Korean J Med Educ 2010 Sep; 22(3): 231-232.

doi: 10.3946/kjme.2010.22.3.231.

pISSN: 2005-727X eISSN: 2005-7288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 각도에서 평가하는 방법, 동료평가, 비전문적인 행동(un-professional behavior) 평가[5,6]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현장바탕(work-based) 평가, 자기반성적인 평가와 포트폴리오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7].

넷째, 한 명이 아닌 다양한 평가자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

여러 명의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같은 평가도구나 같은 평가대상을 평가하더라도 평가자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다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행동을 다른 평가자가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평가자는 여러 명의 교수일수도 있고, 동료, 전공의나 간호사 또는 환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직업군일 수도 있다.

다섯째, 정기적인 되먹이기(feedback)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의 되먹이기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들도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참고하고 평균 점수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다른 평가자의 결과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FERENCES

1. Stern DT, ed. Measuring medical professionalism. New York,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47-157.
2. ABIM Resource Center [Internet]. ABIM Foundation; c2010 [cited 2010 August 16]. Available from: <http://www.abimfoundation.org/en/Resource%20Center/Tools.aspx>.
3. UMKC-SOM Climate of Professionalism Survey [Internet]. ABIM Foundation; c2010 [cited 2010 August 16]. Available from: http://www.abimfoundation.org/en/Resource%20Center/~media/Journal%20Articles/UMKCSOM_Professionalism%20Climate%20Survey.ashx.
4. Medical students: professional values and fitness to practise [Internet]. General Medical Council and Medical Schools Council; c2009 [cited 2010 August 16]. Available from: http://www.gmc-uk.org/Medical_students_2009.pdf_27494223.pdf.
5. Davis JK, Inamdar S, Stone RK. Interrater agree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faculty rating of pediatric residents. J Med Educ 1986; 61: 901-995.
6. Reisdorff EJ, Hayes OW, Reynolds B, Wilkinson KC, Overton DT, Wagner MJ, Kowalenko T, Portelli D, Walker G, Carlson D. General competencies are intrinsic to emergency medicine training: a multicenter study. Acad Emerg Med 2003; 10: 1049-1053.
7. Thistlethwaite J, Spencer J. Professionalism in medicine. Cornwall, UK: Radcliff Publishing; 2008. p 185-209.